

공방만 하다... 봄날은 간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국회 정상화 해법 놓고 협상 교착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 여전...민주 "수용 불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각각 요구하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와 같이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이라며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감 표명 부분은 정상화를 위해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유감 표명 전제로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3당 또는 5당 참여 문제가) 고려될 수 있지만 5자 협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

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6월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제 대중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아부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하고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연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3지대론' 고삐 당기는 평화당

바른미래 내홍 지속...유성엽 원내대표 "세력 뭉치 최선"

유성엽 민주당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을 뭉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똥과 생각이 같다면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주장해온) 제3지대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복, 대립, 갈등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3지대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공공부문 개혁,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 원내대표는 정의당

과 공동 교섭단체 추진에 관해서는 "(경선 때 밝혔듯이) 안 했으면 한다. 반대하는 당 의원들이 복수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4당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결국 '호남의 선거구 축소'로 이어져 호남에 대역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보다 세비와 보좌관 수, 의원개인경비를 50%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회개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특권폐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태경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바른미래 '막장 대치'

孫 대표, 당직 임명철회 거부 바른정당계 "독재" 일제 반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최고위원회는 당권파와 반대파의 전장이 됐으며 원색적인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22일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 임명철회 등 5개 안건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철회,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임명철회, 당헌 유권해석 등 3개 안건은 지난 2일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안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관련 당내 특조위 설치 건은 20일 최고위에서 당내 독립기구인 당무감사위원회에 감사 요구한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무총장 주재로 한 차례 조사가 이뤄진 만큼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 설치 건에 대해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타당 의원인 박 의원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할뿐더러 정치인 발언을 최고위에서 일일이 문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삼'이 된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대표는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일부 최고위원으로부터 '용단 폭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하태경·이준석·권은희)은 일제히 반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당무 거부나 마찬가지로"라며 "계속 당무 거부를 지속할 경우 또다

른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며 손 대표 면전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최고위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라"고 반발했으며, 권 최고위원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결정해서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선거 출마 생각해 본 적 없다"

TV프로서 정계복귀설 일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저는 2013년 2월에 정치를 떠난다고 SNS 글을 올린 후로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정계복귀설을 일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정치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18일 노무현재단 행사에서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언급한 것이 정계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 데 대해서도 "무대에서 잘 안 들려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왔

다 갔다 말이 오가는 속에서 부적절한 비유가 나온 것을 갖고 머릿속에서 문계 구름을 만들어서 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정치로 성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와 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됐으니가 그게 참 시대를 잘 알 수가 없다"고 또 여운을 남겼다.

유 이사장은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고 2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았다"며 "2021년 10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그다음에는 아무 직책 없는 작가를 써볼 생각이다. 노후 자금 비축도 하고..."라고 소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기라운지

'유아 보육료 현실화' 보육법 개정안 발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광산갑) 의원은 22일 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비용을 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월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보육비용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출몰 1130㎡ 1억2천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운암동 아파트지하 205㎡ 은행 8천 창고·사무실 적합 1억9천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분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완도·광주간 고속도 영암 톨게이트서 금정면 방향 1km 4028㎡ 다용도 4억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263㎡ 4억
- 중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강정가 50%. 해남군 신이면 금굴리 대지 17518㎡ 주택 2 감정 21억1600
- 남평읍 드들강 모퉁이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출몰 7억2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단독섬

▶ 바로합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광산구 장수동 담 자연녹지 마을길,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정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해남 신이면 계획관리지역 대지 17,000㎡ 감정가 50% 매11억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점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점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점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동 개인사찰임 매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층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팬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울리모텔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병2 거실룸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빌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 010-2314-8567